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광장의 총소리'

지난 2012년 11월 국회의사당과 총리 관저 등이 몰린 그리스 신타그마광장에서 한 노인이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 한 발은 그리스의 심장을 저격했다.

처음에는 경찰이 몰려들고, 응급차가 달려오고 군중이 몰려드는 어느 사고의 현장과 닮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자살한 노인의 품에서 유서가 발견되면서, 그리스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다. 전직 약사였던 노인의 유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평생에 걸쳐 성실하게 일해 왔다.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조국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국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 도 조국을 버린다.”

예상은 바다난지 오래고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늘어 국가는 더 이상 약속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각종 연금은 최대 70%까지 삭감되었다. 자살한 노인은 평생 연금을 납부했고, 은퇴 후 그 연금으로 살아가는 연금 생활자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금 삭감은 결국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노인은 이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권총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노인의 자살로 그리스에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경제위기로 무기력해진 시민들의 분노가 노인의 죽음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그리스는 시위가 그치지 않고 곳곳에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나는 도시로 전락해버렸다. 재작년 그리스를 휩쓴 폭동의 시발점이었다.

그로인해 집권당이 몰려나고 총선이 실시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한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길은 여러가지다. 경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두 개의 축으로 삼는다. 민간이 침체되면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정부가 어려움에 처하면 세금을 늘려 빈 공간을 메우게 된다.

하지만 민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 재정을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국가의 공간이 비었을 때 민간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 경제에 위기가 발생한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바로 국가 부도로 치닫

게 된다. 현재의 그리스가 그렇다. 그리스는 광범위한 탈세와 무질서한 재정 지출로 인해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과 정부 조직의 비대는 재정 누수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민간 역시 마찬가지다. 섯부른 유로존 가입 후 값싼 금리의 독일계 자금을 빌려 대대적인 투기가 일어났고, 거품 붕괴와 함께 민간은 총체적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국가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무책임한 정치권과 만연한 포퓰리즘에 휘둘린 정부는 해결 능력을 상실해 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려 들지 않고, 서로 미련 탓이다.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인기영양 정책만 남발할 뿐 아무도 고장이 뚫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간이 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매년 늘었고, 쌀 독의 쌀이 떨어질 때까지 파티를 계속했다.

대중은 그들대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양 여겼다. 심지어 지식인

들마저 “그리스는 독립 전 터키 지배하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애국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거나,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국제 납부에 저항감이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늘어놓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 경제 위기를 두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우리는 과연 그와 다를까?, 우리나라 재정은 공간이 든든하고, 경제는 성장하며 정치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연극 역시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그 어떤 연금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 하지만 20년 전의 그리스처럼 우리는 모두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사회구조 개혁은 강요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다.

모든 진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합의 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는 매년 늘었고, 쌀 독의 쌀이 떨어질 때까지 파티를 계속했다.

대중은 그들대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양 여겼다. 심지어 지식인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종교칼럼

함께하는 정진기도



서문성 원불교 산수교당 주임교무

번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며 정진기도를 기도드립니다.

축원기도가 아닌 정진기도는 각자가 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성자도 부처님도 소태산 대종사님도 만 생령(生靈)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원은 해 줄 수 있으나 정진은 대신해 줄 수 없다.

정진기도를 하지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힘이 부족하면 축원기도를 올려도 기도의 감응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위해 기도를 올려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스러워 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의 기운이 응하겠는가.

“나는 관찮아, 우리 자식만, 남편만” 등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만사만리(萬事萬理)의 근본은 바로 자신이다. 부처에게 내가 불공할 줄 모르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불공을 하지 않는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를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축원기도나 자식을 위한 기도 이전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해보자.

산수교당 정진기도에서는 교무인 필자가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모두가 기도의 주관자가 되어 기도를 주관하기로 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텍스트도 준비했다. 특징인 몇 사람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자의 순서도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닌 그날그날 자발적으로 기도를 주관하기로 했다. 3명이 함께 기도를 진행하면 더 큰 마음이 모아질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진행도 혼자하지 않는다. 교무인 나도 정진기도를 올리는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다.

“자발적 정진기도가 잘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내는 교도님들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서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모든 정진기도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앞에서 진행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두가 함께 진행하니 각자 자신의 정진기도가 참됨을 느낄 수 있었다.

10월의 정진기도에 참여한 교도님들이 나름대로 평가한 것을 보면서 이번 행사는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교무인 나의 리더십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두의 어울림으로 기도를 올렸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종교계에서도 이제는 성직자만이 이끌어 가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고 본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신앙하고 수행하는 공동체로서 모습으로 한결溫馨(溫馨) 나아가면 구성원들의 가슴은 물론 조금 더 따스한 가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1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보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기고

사회적 책임 경영과 멘토링



류봉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대한 해결책은 ‘창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어떤가?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자금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다양한 창업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30%에 불과하다. 창업기업 10개 중 7개가 5년 내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기업이 성장하여 안정화에 접어드는 과정에는 큰 고비가 있는데, 이 고비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 일컫는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 실패, 자금부족, 판로확보 미흡 등으로 이 죽음의 계곡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만약 창업기업에게 앞에서 언급한 ‘위대한 탄생’의 김태원, 신승훈과 같은 멘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창업기업은 창업자와 소수의 직원이 기술개발, 자금 확보,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경험도 일천하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자금력이 취약한 창업기업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멘토의 지도와 조언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를 자양분 삼아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메카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하여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스타기업이 탄생한다. 실리콘밸리에는 엔젤투자자가 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자는 창업기업에게 말 그대로 천사인 것이다. 엔젤들은 단지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창업자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자신이 가진 인맥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판로구축을 지원한다. 즉 투자자가 창업기업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창업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멘토링이 성공 창업의 주요 요소라는 인식하에 지난 9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지역 선도기업 40개사가 창업기업 40개사의 멘토가 되는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창업기업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업 경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막혀있던 부분이 멘토의 조언으로 해소되었다.”며 지속적인 만남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실리콘

밸리의 엔젤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지만, 선도기업에게는 반대급부가 없다. 선도기업 대표들은 기업 경영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창업기업 멘토링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창업기업과 선배기업과의 멘토링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급부가 없다고 창업기업의 멘토 역할을 저 버릴 수만은 없다.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실패 시, 창업자의 경제활동 제약과 실업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가치분소득 감소, 구매력 저하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을 야기한다.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선배 기업의 멘토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배 기업인이 창업자의 멘토가 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창업자가 후배 창업자의 멘토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된다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창업 기업 멘토, 이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한 형태일 것이다.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서 지역의 많은 선배기업인들이 후배 창업자의 멘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경일 태극기 게양 무관심 나부터 반성하자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고, 10월 3일은 개천절로 한달 동안 두 번이나 국경일이 있었다. 국가 경축일로 당연히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모든 국민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그것이 생활화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가 의존을 상징한다. 광주 서구 화정동 라인아파트에 90세대가 살고 있다. 하지만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는 겨우 두 세 집에 불과하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관심이 없다. 특히 젊은층은 관심이 더 적다.

국가는 애국가와 국기인 태극기는 국

무엇 생각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 진보도 남녀노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생활 속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작은 일부터 애국심을 높이는 말과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철두철미 국가계양교육이 체험을 통해서 실천하는 학습 지도가 이루어져 한다.

아파트단지내의 어른들 휴식처인 우리 아파트 경로당부터 앞장서야 하겠다는 생각에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을 철저하 실

행하고 있다. 어른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태극기 게양을 가정에서부터 지도해야 한다. 국경일 기념행사에 끝나지 말고 국경일 의의와 국가계양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방송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경일 전날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 없는 국민의 슬픔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다. 모든 가정이나 직장에서 국경일 태극기가 빠짐없이 가을바람에 펄럭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본다.

▲최철순 광주 서구 화정동

社說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치밀하게 짜야

내년 5월부터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선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의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주변도 치밀한 구역 설정은 물론 방호장비·약품, 대피소 확보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재체계 개편이 과제로 떠올랐다.

29일 전남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영광·고창을 포함해 장성·함평·무안, 전북 부안까지 확대된다.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도 1만4000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반경 3~5km 내의 지역은 원전 사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으로, 20~30km 내는 방사능 영향 평가나 환경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보호조치를 하는 ‘긴급 보호조치구

역’으로 각각 설정해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계획구역은 전남도 및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 확정된다. 구역이 확정되면 현재 원전 반경 2km까지 설치된 경보시설을 내년 말까지 5km까지 확대해야 한다. 4년에 한 번 실시하던 합동훈련은 2년에 한 번, 주민 대피 등 집중훈련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한빛원전은 최근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과 있던 가동정지, 방사능 누출은 폐 의혹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를 비롯한 주변 지자체들은 원전지에 거주중인 세금을 안전대책보다 지역개발에 더 많이 사용해 우려가 높다.

비상계획구역은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생명선’인 만큼 최대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용성 있는 방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 ‘광주 자동차산업’ 차질 안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자동차를 미래동력산업으로 ‘눈독’ 들이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위협받고 있다. 자동차 생산지역인 전북과 울산, 경기, 부산 등과 함께 전남, 대구, 인천, 경남 등이 자동차산업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남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과 곡성에 자동차 20만~30만 대 생산 공장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자동차산업에 올인하고 있는 광주시와 미찰을 빚고 있다.

여기에 광주 자동차산업은 최근 산업동성장원부의 광주 지역사업발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됐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포함 여부도 한 달 이상 미뤄져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

성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광주시의 성장 동력산업이자 일자리 관련 산업 등 여건도 광주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해 나서는 빛그린국가산단과 진곡산단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자동차 전용 출대 산단으로서 이 모두를 아우르기에 충분하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과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차세대전장부품 자동차센터, 하이테크 금융센터 등 수많은 연구·지원기관, 자동차 계열 고교와 전문대학이 20개 교에 이를 정도로 연구 및 지원시스템도 안정적이다.

특히 이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인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사업발전계획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타지역을 의식한 정치적 접근은 더더욱 안 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정부와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산업 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문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에 불을 붙여버린 사나이. 그림 속 그 남자가 희미하게 웃고 있다. 희끗희끗한 머리 카락, 문드린 코와 입, 슬프지만 당당해 보이는 눈동자. 그 앞에서 연주가 시작됐다. 저음의 더블베이스, 첼로, 그리고 두 대의 비올라. 초반의 강렬함과 깊은 어운을 남기는 마지막, 관라팍 사이의 짧은 침묵.

미술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음악 작품이 걸린 현장에서 연주하는 ‘화음(畫音) 프로젝트’ 공연이 22일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곡은 강

온갖 사연이 어린듯해 아련하다. 미술관에 오기 전, ‘공재 윤두서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에 들렀다. 윤두서의 글씨, 그림을 거쳐 드디어 ‘지화해 보이는 눈동자. 그 앞에서 연주가 시작됐다. 저음의 더블베이스, 첼로, 그리고 두 대의 비올라. 초반의 강렬함과 깊은 어운을 남기는 마지막, 관라팍 사이의 짧은 침묵.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그림(38.5cm×20.5cm)이지만 흡입력은 대단하다. 날카로운 눈매는 나를 껴들이 버릴 듯하다. 꼭 다문 입매와 한울 한울 살아 있는 수염도 인상적이다.

그 남자들의 초상

그 남자들의 초상

‘지화상’ 결에는 거울이 놓여 있다. 공재가 바로 이 거울을 마주하고 그림을 그렸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오랜 시간 거울을 보며 자신을 자독하리 만치 관찰해 완성한 작품인 것만은 분명하다.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오랜 시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의 초상에에는 어떤 사연들이 담길까. 새삼스러울 ‘얼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미술관 전시는 11월9일까지, 박물관 전시는 내년 1월18일까지 계속된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